

남구 푸른길, 관광·힐링명소로 만든다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개통 맨발길·청소년 쉼터 조성키로

광주시 남구가 푸른길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개통과 함께 각종 편의 시설 설치와 각종 행사를 개최해 푸른길을 남구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주월동과 진월동 인근 푸른길에 맨발길과 청소년쉼터가 조성된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테마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남구는 푸른길 테마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여원을 투입한다.

먼저 주월동에서 진월동으로 이어지는 푸른길공원 구간 2곳에 맨발길이 조성된다.

청소년 쉼터 공간은 푸른길공원 산책로 끝 지점

인 동성고 인근 소규모 광장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는 학부모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장소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내년 6월 맨발길과 청소년쉼터 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구는 푸른길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짐에 따라 주말마다 각종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힐링'의 공간인 푸른길을 활용해 주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백운광장 푸른길 인근에서 주민들이 모여 신나는 노래에 몸을 푸는 생활체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생활체조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다음달 20일에는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함께하는 방 탈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주민 100명과 주민 100명이 1대1로 팀을 이뤄 함께 푸른길공원을 산책한다.

방 탈출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차례도 외출하지 않거나, 대인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고위험군 주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2.4km 가량의 푸른길을 산책하며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쌓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6일 주월동 푸른길 공원 광장에서는 '함께 배우는 남구, 함께 성장하는 남구'라는 주제로 '평생학습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이 마을행복학습센터와 동아리, 학교 등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에서 습득한 배움의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유안초 학생들은 무대에서 치어리딩을 선보였고,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앙상블 공연,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난타 공연을 펼쳐보였다.

남구 관계자는 "푸른길 공원은 관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다"며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 시설물도 일제히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푸른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 북구 광융합무역축진단이 '국제광융합산업 전시회'에서 수출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보이고 있다. 문인(오른쪽 두번째) 북구청장이 현장에서 축하하고 있다.

북구 광융합무역축진단, 130만 달러 수출계약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공동관 운영 제품 전시·콘퍼런스·바이어 초청 등 '해외 시장 다변화 교두보' 마련

광주시 북구가 광융합 무역 축진단을 운영해 130만 달러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에 참여해 '130만 달러' 수출계약을 이끌어냈다.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는 광기술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국내 유일 광융합산업 전문 전시회로 광융합 분야 세계 유망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해 국내 광융합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자리다.

지난 2001년부터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에는 5개국 4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북구 광융합무역축진단 6개 기업'을 비롯해 국내 59개 기업이 참여해 각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제품에 대한 열띤 홍보와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수출 성과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광융합

무역축진단'을 통해 일궈냈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광융합무역축진단 기업은 ▲다온씨엔티 ▲라라랩스 ▲아이오라이트 ▲유포마린 ▲트로닉스 ▲휘라포토닉스이고 이들 기업은 북구의 협력 아래 '광융합무역축진단 공동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제품 전시, 콘퍼런스 참여, 해외 바이어 초청·미팅 등을 통해 '총 130만 달러' 상당 수출계약을 체결해 '해외 시장 다변화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지역은 광산업집적화단지 조성되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광융합 기업들이 다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과 잠재력 있는 지역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융합무역축진단은 4차산업 분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자 북구가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한 통상 분야 시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L.A, 샌디에이고 등 '미주 시장'을 공략해 '10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함께 걸으며 건강 챙기고 기부도 해요”

11월2일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 참가비, 가족돌봄청년에 후원

영산강 일대에서 다음달 2일 '제3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30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오는 2일 영산강 일대에서 주민들과 함께 5.2km의 거적을 만드는 '제3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된다.

참가비 '오(5)천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2)웃'의 희망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은 오잇길 걷기대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5.2km의 거적'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출발해 세하동 인근을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FsR0wB72>)을 통해 받고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일원)도 가능하다.

서구는 이번 걷기대회 후원금을 가족돌봄청년의 자아실현과 진로 및 인생의 꿈을 찾는 과정을 지원하는데 쓸 예정이다.

특히 이날 김이강 서구청장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착한걸음 52km 걷기에 도전한다.

백진서원에서 출발해 금당산 맨발로, 풍암호수공원, 운천저수지, 삼부시민공원, 5·18기념공원, 양동시장, 영산강 자전거길, 전평제를 거쳐 다시 백진서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이날 착한걸음에는 서구 주민들이 함께 한다. 52km구간을 5.2km씩 10개 테마로 구분해 각 구간마다 맨발걷기동호회, 걷기동아리, 가족돌봄청년, 대학생, 주민자치협의회, 두바퀴사랑회, 18개동 보강협의체 위원장 등이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걷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함께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착한도시 서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제1회 오잇길 걷기대회는 총 1007명이 참여해 참가비 등 603만5000원의 후원금을 모았으며, 지난 4월 제2회 걷기대회는 총 1592명이 참여해 862만1000원의 후원금이 모아졌다. 두 대회 후원금은 가족돌봄청년의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아픈 가족을 위한 병원비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동구합창단

스페인 세계합창대회 금메달

광주시 동구합창단이 스페인 세계합창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합창단이 지난 27일 독일 인더쿨투르재단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Sing for Gold 스페인 세계합창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스페인 세계합창대회는 2년 주기로 열리며 올해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대회는 7개 부문으로 나뉘 펼쳐졌으며 34개국 52팀 2000여 명이 참여했다. 독일 인더쿨투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수상 이력이 있어야 참가가 가능하다.

동구합창단은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참가했으며, 심사위원단의 평가결과 성인합창부문에서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합창단은 'Bonse Aba'(잠비아 민요), 'Rosas Pandan'(필리핀 세부 민요), '두껍아 두껍아'(이동훈 곡), 'Swingin' with the Saints'(미국 흑인 연가) 등 4곡을 선사했다.

동구합창단은 3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성악 학교에서 마드리드 기자 합창단(지휘 임재식)과 함께 교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대한민국 대표로 세계대회를 출전해 국위선양을 하고, 금메달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 기쁘다"면서 "2년 연속 세계대회 금메달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동구 주민들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 10월 창단한 동구합창단은 신동하(동구 부구청장) 단장과 박병국 지휘자, 임기영 단무장, 조미연 반주자, 단원 등 51명으로 구성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박피마을 주민들, 박현석 광산구의원에 감사패

주민숙원사업 해결 기여 공로

더불어민주당 박현석(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광산구의원이 최근 박피마을(박호동)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30일 광주시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박피마을 주민들은 박 의원에게 마을 발전에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평소 지역 민원 해결에 적극 앞장설 뿐 아니라, 진입로 포장·보수 지정·양씨삼강문 주변 시설 정비 등의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마을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이에 최근 개최된 박피마을에서 박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박 의원은 "이 감사패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을 위해 끊임 없이 소통하고 민원 해결과 지역을 위해 더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광산구의회 제8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제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돼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